



어린이급식관리센터김니은팀원 식약처장 표창 수상

전주시 덕진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소속 김니은 팀원이 '2025년 급식안전관리 유공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김씨는 2015년 입사 이후 10년 넘게 어린이 영양 관리와 급식소 위생·안전 지원 업무를 맡아 지역 내 어린이급식소의 급식관리 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해 왔다. 특히 꾸준한 현장 점검과 맞춤형 영양·위생 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안전한 급식 환경 조성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니은 팀원은 "앞으로도 덕진구 어린이급식소의 위생·안전 및 영양 관리에 힘쓰고, 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노정국 센터장(전북대 식품영양학과 교수)은 "아동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전문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상진신흥,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 개최

전주상진신흥이 지난 20일 지역사회 실천을 위한 연말 대표 사회공헌 활동인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를 열고, 직접 담긴 김장김치와 겨울이불을 지역 취약계층에 전달했다. 올해 행사에는 임직원과 조합원 봉사자 약 50명이 참여해 점심부터 양념 배합, 버무리기, 포장까지 김장 전 과정을 손수 진행했다. 이들이 정성스럽게 담긴 김장김치 약 500포기는 독거어르신, 한부모가족, 저소득 조합원, 지역 복지시설 등에 전달됐다. 특히 전주상진신흥은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큰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겨울이불 20채를 함께 준비해 지원의 의미를 더했다. 봉사 현장에는 따뜻한 온정과 연말 분위기가 어우러져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금융협동조합의 가치를 한층 높였다. /오상근 기자



구천동농협, '찾아가는 영화관' 행사 개최

구천동농협(조합장 김성곤)은 지난 20일 '찾아가는 영화관' 행사를 개최하며, 문화 접근성이 낮은 농촌지역 주민에게 특별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이번행사는 농촌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영화관람 기회를 제공하여 조합원의 여가·문화 복지증진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약 130여명의 주민이 행사장을 찾았다. 상영작으로는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말미잘을 부탁해가 상영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무주=전문선 기자

김제 신평동 복지기동대, 고령자 가정 청소봉사활동

김제시 신평동 행정복지센터는 복지기동대(대장 최임관)가 지난 20일 주거환경 개선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집 청소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가정 대상자의 집을 찾아 청소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 대상자는 고령의 나이와 건강상의 이유로 집안 정리가 어려워 버려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버리지 못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했으나 신평동 복지기동대 봉사활동을 통해 집 정리와 쾌적한 환경 조성에 도움을 받게 됐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 황산면 복지기동대, 취약계층 커튼 설치 봉사

김제시 황산면 행정복지센터는 복지기동대(대장 윤충근) 20여명이 지난 21일 관내 주거 취약 복지 대상자 가구에 커튼 설치 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경제적 사유로 커튼을 설치하지 못하거나, 오래된 커튼이 훼손되어 단열과 빛 차단 역할을 하지 못한 채 방치돼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가구에 주문 제작한 커튼을 대원들이 직접 설치하는 활동을 진행했다. 윤충근 복지기동대장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들에게 맞춤형 지원으로 활동 범위를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농산물 유통 새로운 기록 쓰다

진안로컬푸드, 올해 100억원 매출... 개장 이후 누적 500억원 돌파

진안군에서 운영하는 로컬푸드 직매장이 올해 괄목할 성과를 거두며 지역 농산물 유통의 선도 모델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군은 로컬푸드 전주점과 진안점의 올해 매출이 각각 75억 원, 25억 원으로 합산 100억 원을 달성했으며, 개장 이후 누적 매출은 500억 원을 넘어섰다. 이는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구축과 농가·소비자 간 신뢰 기반 직거래 체계가 결실을 맺은 결과로 평가된다. 특히 지난해 9월 문을 연 '로컬푸드 직매장 진안점'은 개장 이후 빠르게 지역사회에 정착하며 전주점과 진안고원물에 농산물을 공급하는 유통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진안점은 지역 농산물의 집하·선별·물류 중심지로 자리 잡으며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핵심 거점으로 성장하고 있다. 진안군은 로컬푸드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급체계를 위한 기획생산 구축, △판매 품목 다양성 확대, △관내 가공식품 활성화 등을 포함한 '진안로컬푸드 3대 혁신과제'를 중점 추진 중이다. 군은 이를 통해 지역 농산물 유통의 안정성과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로컬푸드 전주점은 총사업비 120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400평, 2층 규모의 신축 확장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부지 매입을 완료했으며 연내 설계를 마무리한 뒤 내년 착공해 2026년 12월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새 전주점은 1층 로컬푸드 직매장, 2층 정육식당으로 구성해 품목 다양성 확대와 체험 요소 강화로 소비자 만족도를 높일 전망이다. 전춘성 군수는 "진안 로컬푸드 직매장은 지역 농산물 유통의 중심축이자 농가 소득 향상의 핵심 동력"이라며 "앞으로도 진안점의 유통허브 기능을 강화하고 3대 혁신과제를 충실히 실천해 진안 농산물이 전국에서 신뢰받는 브랜드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폐 크립토크쿠스증' 감염 치료 가능성 제시

'노벨상을 꿈꾸는 임상 의사 양성 프로그램' 수료한 전북대 의대 오재용 학생

진균 감염 임상적 중요성 규명 연구... 호흡기 세계 최고 권위자에 논문 게재

'노벨상을 꿈꾸는 임상 의사 양성 프로그램' 수료자인 오재용 학생(전북대 의과대학 분과 1학년)이 폐 크립토크쿠스증과 같은 진균성 호흡기 감염을 조기에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단서를 제시한 연구성과로 호흡기 분야 세계 최고 권위 학술지인 American Journal of Respiratory and Critical Care Medicine (AJRCCM, IF 19.4)에 논문을 게재했다. 이에 따르면 AJRCCM은 미국흉부학회(ATS)가 발행하는 호흡기학·중환자의학 분야의 대표 저널로, 엄격한 심사과 높은 인용지수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의학 학술지 중 하나다. 오재용 학생과 지도교수 이용철 석좌교수(전북대 의대) 연구팀은 다발성 골수종 환자에서 발생한 폐 크립토크쿠스증의 치료 과정을 심층 고찰한 결과, 최근의 COVID-19과 같은 급성호흡기바이러스 감염이 진균 감염의 취약성과 임상적 치료 불응성을 높일 수 있음을 제시했다. 연구팀에 의하면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이경태 교수팀과 협업해 환자 폐조직을 분석하고, 유전자 검사로 감염의 원인균을 정확히 확인했으며, 진단 영상과 조직학적 소견, 치료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더불어 800만 명 이상이 포함된 국가 COVID-19 코호트 자료를 연계 분석함으로써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 후 속발성 진균 감염의 의학적 중요성을 다각도



왼쪽부터 정재석 교수·오재용 학생·내빈씨 이용철 교수

로 입증했다. 이용철 석좌교수는 "지난해 Thorax에 논문을 게재한 박준형 학생에 이어, 오재용 학생이 AJRCCM에 논문을 발표하며 이 프로그램이 명실상부 호흡기 연구의 산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재석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는 "이번 연구는 다양한 근거를 확보해 치료 전략 개발의 초석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오재용 학생은 "교수님들의 열정적인 지도와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크립토크쿠스를 비롯한 진균 감염과 면역 연구를 이어가 호흡기 의학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장은성 기자

순창군, '제2회 장애인 한마음체육대회' 성황리 개최

술런·보치아 등 6개 종목으로 진행

순창군 장애인들의 건강 증진과 화합을 위한 '제2회 순창군 장애인 한마음체육대회'가 지난 21일 순창군 장애인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순창군 장애인체육회가 주최·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최영일 순창군수와 순창식 군 의장, 군의원, 장애인 단체 회장 등 주요 내빈과 선수단 등 총 250명이 참여해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개회식은 내빈 소개와 국민의례, 개회선언, 최영일 군수 대회사와 내빈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술런, 보치아, 한궁, 투호, 2인 3각, 공 넘기기 등 6개 종목에서 선수단들이 뜨거운 경쟁을 펼쳤다. 참가자들은 승부를 넘어 즐거운 신체 활동을 통해 재활 의지를 다지고, 서로 소통하며 활력을 나누었다. 특히 다양한 종목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



는 모습은 이번 대회가 장애인 체육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이라는 본연의 취지를 충실히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기 후에는 장애인 댄스팀과 실버댄스팀의 공연이 이어지며 화합 한마당의 축제 분위기를 더했다. 이어 결과 발표와 시상, 경품 추첨으로 대회를 마무리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전북대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스타트업 대전서 수상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인 ㈜서해테크와 (농)㈜파엔에프바이오가 최근 열린 '제10회 스타트업(Start-up) 전북 창업대전'에서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과 IR 경진대회 우수상을 수상했다. 지난 21일 전북대에 따르면 서해테크(대표 이영섭)는 조선 분야에서 축적된 엔지니어링 기술력을 기반으로 기계설비 운영관리 및 친환경 에너지 제품을 개발하는 기업이다. 공정안전관리(PSM) 고도화와 지속적인 고공 침출 등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2022년 창업 이후 매출이 4억 6천만 원에서 2024년 35억 원으로 성장했으며, 고용 인원 역시 24명에서 51명으로 확대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농)㈜파엔에프바이오(대표 신민철)는 희토류(Rare Earth Element)를 활용한 친환경 미량요소비료 '닥터히토'와 '슈퍼히토'를 개발했으며, 자체 7나노미터(nm)급 초미세 분쇄공정 기술을 통해 희토류 원소의 흡수 효율을 높였다. 또한 전북·전남 지역 대학과 협력해 청년 기술인력 양성 및 스마트 생산설비를 구축하며 농업분야의 지속가능한 혁신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전그로팀', 청년농 인재 양성 성과발표 우수

전북대학교 영농창업특성화사업단 학생들로 구성된 '전그로(JEONGROW)팀'이 청년농 연계 융합형 인재 양성교육 성과발표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이는 단순한 교과 활동을 넘어 교육·현장·성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실질적으로 구현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21일 전북대에 따르면 전그로팀은 농가와 지역 축제, 체험 프로그램을 연결하는 통합 플랫폼 'Local ON'을 기획했다. 팀은 농가 인터뷰, 지역·축제 데이터 분석, 사용자 설문조사 등 현장 중심의 조사 과정을 거쳐 농촌관광 활성화와 농가 홍보 역량 강화를 위한 실질적 모델을 제시해 심사위원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장은성 기자



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 '2025 JB인문학 강좌' 개최

JB금융그룹 전북은행 후원으로 운영되는 (재)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이 지난 21일 호남제일고등학교에서 '2025 JB인문학 강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강연에는 인기 외식 브랜드 '두끼 떡볶이'의 김관훈 대표가 연사로 나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적어본 적이 있나요?'라는 주제로 자신의 성장 과정과 창업 스토리를 학생들과 진솔하게 나눴다. 김 대표는 목표 없이 방황하던 어린 시절부터 우연히 시작한 떡볶이에 대한 관심, 브랜드를 키우기까지 겪은 시행착오와 도전 과정을 솔직하게 풀어내며 학생들의 큰 공감을 얻었다. 특히 인생의 전환점이 된 '떡볶이 동호회 카페' 운영 경험은 청소년들의 흥미를 끌었다. /오상근 기자

남원 노암동,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가구 난방유지 지원

남원시 노암동 행정복지센터는 겨울철 취약계층의 에너지 부담 및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가구를 선정하고 가구당 약 30만원 상당의 난방유를 지원했다. 이번 대상자는 1일 1가구 방문 및 생활 실태 파악을 기반으로 이루어졌으며, 난방 취약 여부, 긴급성, 가구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원의 효과성을 높였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난방유 사용 상황과 추가 지원 필요성을 살필 계획이다. 한 어르신은 "동사무소 덕분에 올겨울은 걱정 없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다"고 감사를 전했다. 차미화 노암동장은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에게 가장 먼저 다가갈 수 있도록 복지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